

구동서독 접경지역, 聯邦州 작센(Sachsen)과 바이어른(Bayern)의 전환과정

- 사례지역 플라우엔(Plauen)과 호프(Hof)의 섬유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김상빈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상근연구원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독일의 통일과 동유럽국가들의 변혁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야기했고, 이러한 변동들은 공간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독일의 중심부지역 뿐만 아니라, 구동서독 접경지역에도 해당되었으며, 이들 접경지역에서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들이었다.

동쪽의 접경지역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되어야 했고, 서쪽 접경 지역에서는 이웃한 동쪽의 최우선지원지역과의 경쟁에 내맡겨졌기 때문이다. 분단된 양 국가들은 통일 이후 전환기에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일의 부작용은 더욱 분명해졌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구조변동에 따라 동독 주민들은 빈번히 실업을 경험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만 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점차 냉정을 되찾게 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동서독 접경지역이 변화했으며, 통일이후 어떻게 구동서독 접경의 사례지역에서 전환과정(Transformationsprozeß)을 겪었는지를 밝히고자한다. 여기서 특히 그 지역에 입지한 산업의 중요한 변화들을 조사하고, 특히 섬유와 의류산업 그리고 이 업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밝히고자한다.

II. 논문의 전개과정(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지리학적 관점에서 국경과 접경지역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서, 국경과 접경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개념, 유형, 공간적 작용, 국경을 넘어선 공동사업)을 기술하였고, 지리학적 접경연구에서 기존의 접경지역의 경관 중심에서 행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연구경향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경험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경제지리학적 방법론과 접경지역에 대한 그 이론의 적용을 통해 연구지역에서 섬유와 의류산업의 변화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자극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이론에서는 구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 경제로 통합의 문제가 중요하다. 경계를 넘어서는 각각의 지역들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과정은 상이하게 진행되었다. 여기서 필자는 조절이론의 가정에 바탕을 둔 Krätke의 모델을 소개하고자한다. Krätke는 여러 차례 다양한 접경지역에서 지역 통합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동중부 유럽에서 각각의 접경지역은 상이한 방식으로 세계경제체제에 통합되었다. 현재의 또한 과거의 접경지역의 미래의 경제 통합은 두 가지 상이한 지역발전의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low road' paths 와 'high road paths').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High road paths'는 이노베이션의 증대를 위한 지역 기업들과 정치적 행위 주체들간의 보다 강화된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내발적 발전 잠재력을 이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접경지역의 경우에 이러한 전략은 양 접경지역에서 기술적인 면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제고와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증대와 고차원적인 협력의 안정화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low road' paths 는 외부로부터 조종에 의한 투자가 특징이다. 이러한 방향의 입지우위는 경제적으로

낙후한 접경지역에서 상대적 생산비 절감과 저임금 그리고 낮은 수준의 고용수준에서 발생한다. 수출지향의 초국적 기업의 분공장,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서 지배적이다. Krätke는 기업들간에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을 지리적 범위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구동서독 접경지역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경제 발전은 Type C 협력으로 가능하다(그림 참조). 이러한 협력은 접경지역에서 기업들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역에 기반한 기업들간의 협력은 구동서독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경험적 연구는 주로 질적인 사회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연구지역에서 섬유 의류산업의 변동과정과 구조조정을 파악하기 위해, 특히 경제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인터뷰가 주를 이룬다. 이들 인터뷰는 전사와 수정과정을 거쳐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인 방법은 매우 저조한 회수를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양적인 접근은 설문 진행됨에 따라 섬유, 의류산업의 복잡한 변동과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체계적인 비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지역은 란트크라이스(Landkreis) Vogtlandkreis와 란트크라이스(Landkreis) Hof 그리고 그들에 둘러싸인 중심도시 플라우엔(Plauen) (작센에서 고차중심지 역할)과 호프(Hof)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에서이다.

1. 이들 지역은 이미 독일 분단 전부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다..
2.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는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는 압도적으로 섬유 의류산업으로 특화되었다
3. 사례지역에서는 국경개방 후 상품구매와 통근을 위한 통행이 대단히 강화되었다.

III. 전환과정과 구조조정 과정들의 진행

경험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1. 전문가들이 인식한 두 사례지역에 대한 지리적 위치의 의미는 통일전과 비교하면, 주민의 자율성과 교통 인프라의 개선(고속도로와 철도의 확장)과 그와 관련된 입지우위를 근거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2.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의 산업구조는 통독전에 섬유, 의류산업과 기계제작이 두드러진 업종이었다. 통독후 산업구조는 민영화의 상이한 속도와 다양한 방식의 사유화(MBO, MBI, 혹은 혼합된 형태) 때문에 통일전 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는 통일전에 섬유와 의류산업이 두드러진 단일구조였다. 통일 후에 제조업분야에서 이러한 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다.

3. 오늘날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에서 섬유, 의류산업의 비중은 -고용이라는 면에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매출액은 통일로 야기된 붕괴후에 다시 증가하였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는 통일후 섬유, 의류산업의 위치는 다른 업종의 성장(화학산업, 플라스틱, 서비스업)에 의해 다소 둔화되었지만, 섬유, 의류산업은 아직도 주요한 고용주였다. 그밖에 섬유와 의류산업의 비중은 그 전통에서 유래한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는 전통적으로 섬유업체들간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섬유지역 형성이 용이해졌다.

4.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섬유, 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되었다.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 기업의 판매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변동에 의해 대단히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동유럽시장의 붕괴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판매가의 안정과 낮춤을 위한 국가보조금의 철폐를 언급할 수 있다. 구서독과 서유럽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그에 따라 확고한 고객관계를 형성한 기업과 저가제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거의 성공하지를 못했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 기

업의 경우에 정치적 경제적 변동에 의해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왜냐하면, 동중부유럽과 동유럽은 구매력이 대단히 약하고, 이미 저가의 시장이 자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통일후 구동독시장에서 판매 시장은 어느 정도 확대되었지만, 판매는 실제로 서독과는 반대로 도매상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 기업들의 경우에 대단히 높은 비율을 독일과 유럽연합회원국들에 판매하고 있다. 동독과 동유럽의 구매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노동시장 변동에 의하여 두 사례지역 사이에 광범위한 통근관계가 발생하였다.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 노동시장의 대변동은 섬유·의류산업의 경기후퇴와 이어지는 시장경제체제에 적응을 위한 합리화조치에 기인한 한 엄청난 고용감소에서 기인한다.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 노동시장에서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인접한 바이어른주나 다른 서독의 연방주로 통근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통일후에 우선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보다 낮은 임금에 만족해야했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의 노동시장에서는 통일후에 구직자들간의 경쟁이 첨예화되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는 구동독지역에서 온 구직자와 통근자들로 인해 현지의 구직자를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에서 합리화 조치와 생산시설의 부분적 해외이주를 통해 실업률은 더욱 높아졌다.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전보다 전문인력 고용이 훨씬 쉬워졌다. 왜냐하면 잘 훈련된 전문인력이 동독으로부터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후 공식으로 있었던 견습생 자리들이 채워졌고, 후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유럽연합 단일 시장의 완성은 섬유·의류산업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가져왔다. 두 지역에서 공통적인 이점은 다양한 무역장벽의 철폐로 인한 상품교환과 수출이 용이해졌다. 이로 인해 작센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회원국들의 시장으로 판매가 용이해졌다. 즉, 이론적으로 판매시장이 확대되었다.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의 소기업에 불리한 점은 세분화되고, 판매시장확대가 대단히 어려운 서유럽 시장으로 진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의 기업에 불리한 점은 경쟁 상황이 더욱 첨예화되었다는 것이다.

5. 동독과 중동부 유럽의 격변에 의해 야기된 새로운 환경에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들은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개발하였다.

신제품 및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작센의 섬유기업들은 대량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니치(niche) 상품 개발에 매진하였다. 몇몇, 특히 중기업들은 대단히 유연적이기 때문에, 생산방식을 대단히 빨리 조정할 수 있었다. 신제품과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또한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의 기업에서 가능한 생존전략으로 오래 전부터 행해지고 있으며, 이 기업들은 이것을 좀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몇몇 기업은 이를 통해 각 업종에서 경쟁우위를 얻었으며,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이러한 전략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고전적인 생존전략이다.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기업들은 통일후에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으로 다양한 설비에 투자를 하였다. 주정부의 강력한 후원으로 섬유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였다. 생산성 제고는 고용자를 해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 기업의 절대다수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합리화를 추구했다. 구조적 위기의 시절에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고용자의 해고를 통해 이룩하였다.

입지변동: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기업 중에 기업 전체의 이주는 아주 드물게 실행되었다. 개별적인 생산과정의 일부만 이주가 이루어졌다. 의류기업은 노동집약적 생산방식 때문에 자본집약적인 섬유산업 보다 빨리 그리고 간단하게 생산과정의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에는 섬유산업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이주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기업의 부분적 이주는 단순작업에 국한되었다. 작센의 기업들은 강한 지역적 유대관계 때문에 미래에도 아주 적은 경우에만 생산시설의 일부를 이주시키려고 한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 기업에서도 완전히 기업을 폐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의 상당수의 기업들이 생산시설의 일부를 이주시켰다. 이주의 공간적 방향은 중동부유럽, 남부유럽, 발틱국가, 북아프리카지역이다. 입지변동의 한가지 목표는 새로운 시장개

척 내지는 용이한 시장진입이다.

협력: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기업에서 가능한 생존전략의 하나로서 협력관계의 형성은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실행되었다. 그러한 협력은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기업들끼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외국기업들과도 협력이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협력의 형태 중에서도 특히 판매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 중 기업들간의 협력은 통일이후 경쟁력과 입지보전을 위해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 기업들은 다양한 활동분야(예를 들면 원료구입, 공동으로 견습생 모집, 입지광고)에서 협력을 조직화해냈다.

6. 섬유 의류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에 현재 존속하고 있는 기업들은 통일이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기업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 오랜 전통, 고속도로의 분기점에 위치한 잘 갖추어진 인프라와 섬유산업의 모든 부분이 현존, 훌륭한 노동시장등은 섬유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요소들이다. 미래에는 대량생산은 더 이상 성공적이지 못하며, 단지 창조적인 부분만이 작센의 폭트란트(Sächsisches Vogtland)에 남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다양한 근거에서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에서 섬유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기업들의 적응전략- 틈새 시장 진입, 유연화, 특화, 고품질 제품 생산-에서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바이어른의 폭트란트(Bayerisches Vogtland)의 섬유 의류산업은 미래에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대신 오히려 이들 산업의 후퇴를 염두에 두어야한다.